

2015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I. '15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1
II. '15년 4분기 수출 전망	10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16

확인 : 산업팀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조 사 역 유형준 (6255-5709)
yhj0603@koreaexim.go.kr

< 요 약 >

I. '15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 3분기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9.5% 하락 · 수출물량은 증가세 지속
 -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5% 하락한 1,283억 달러 기록
 - 2분기부터 이어진 유가하락 영향으로 관련 품목 수출 부진이 지속됐으나, 유럽 등 선진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자, 자동차 관련 수출은 9월 들어 회복세로 전환
 - 수출물량은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수출물가는 하향세 지속
 - 수출물가(달러화기준)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의 하락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3.9% 하락했으나, 수출물량은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증가세로 전환해 전년동기대비 4.2% 상승
 - 3분기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는 수출채산성 개선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p 상승한 94 기록
 - 3분기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원화기준) 상승 영향으로 전기(94)보다 개선된 98을 기록
- ※ 원/달러환율 : 1,072.4(15.4월) → 1,108.2(5월) → 1,115.5(6월)
 → 1,170.0(7월) → 1,182.5(8월) → 1,185.3(9월)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평가지수	89	99	95	94	96	94	94	95	90	93	94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6	98	94	93	96	88	90	98	90	94	98
수출단가 평가지수	94	97	94	93	97	85	90	98	91	97	100
생산원가 평가지수	106	104	102	102	107	102	101	102	99	103	103
수출물량 평가지수	91	105	100	102	95	104	98	97	90	96	94
수출계약 평가지수	91	105	101	102	96	103	97	96	89	96	93
자금사정 평가지수	98	102	100	99	100	97	93	98	93	96	95

○ 산업별로는 석유화학과 플랜트·해외건설 산업에서 전분기에 비해 업황 악화 평가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업황이 더 낮게 평가됐지만 전분기에 비해 개선된 반면, 대기업 업황은 전분기 대비 악화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산업	석유 화학	철강 비철금속	전기 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플랜트· 해외건설	대기업	중소 기업
'15년 2분기	98	81	95	89	94	90	99	98	91
3분기	89	92	100	90	94	91	97	96	93

II. '15년 4분기 수출 전망

□ 4분기 수출선행지수 전기대비 3.7% 상승, 전년동기대비 6.2% 하락

○ '15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기대비 3.7% 상승했으나,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6.2% 기록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Delta 2.4('15.1/4) \rightarrow \Delta 9.2(2/4) \rightarrow \Delta 8.3(3/4) \rightarrow \Delta 6.2(4/4)$

※ 선행지수 전기대비 증가율(%)

: $\Delta 5.2('15.1/4) \rightarrow \Delta 5.4(2/4) \rightarrow 0.9(3/4) \rightarrow 3.7(4/4)$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및 수출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부진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유로존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기회복력이 다시 떨어지고, 중국·브라질 등 개도국 경기하락세도 지속되면서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세 둔화

- 유로존 등의 경기회복에 의한 수출 주문 확대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 지수는 전기대비 상승

※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지수 (2010=100)

: $119.35('14.4/4) \rightarrow 85.73('15. 1/4) \rightarrow 90.28(2/4) \rightarrow 94.26(3/4)$

- **가격경쟁력** :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에 비해 상승함에 따라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해 가격경쟁력 상승

※ 원/달러환율(평균) : 1,089.3('14.4/4) → 1,100.5('15.1/4) → 1,098.7(2/4) → 1,179.5(3/4)

※ 원화 실질실효환율 : 110.2('14.4/4) → 113.9('15.1/4) → 114.3(2/4) → 109.8(3/4)

- **수출물가** :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안정으로 인한 석유 및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수출물가는 하락세 유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제1차 금속제품 가격 하락세도 지속

※ 수출물가지수 전월대비 등락률(%)

: △0.7('15.6월) → △2.2(7월) → △2.4(8월) → △1.0(9월)

- **주요 산업** : 반도체 및 IT산업은 안정세를 유지하겠으나, 선박 수출은 수출금액이 작은 상선 위주 인도로 수출액 감소, 기계 수주도 중동 및 일본 지역 수요 위축으로 감소세 지속

□ '15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 내외 하락 전망

- 4분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수출선행지수가 전분기대비 3.7% 상승하는 등 수출 하락세가 진정돼, 전분기의 수출액 감소율(전년동기대비 9.5%↓)과 유사한 전년동기대비 9% 내외 하락 전망
- 지난해 4분기 수출실적(1,477억 달러)이 매우 높았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액 하락폭 감소는 제한

<수출선행지수 추이>

분기별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선행지수	110.1	114.4	114.2	118.5	119.4	121.4	121.2	122.9	116.5	110.2	111.1	115.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7	3.6	1.7	11.3	8.5	6.1	6.1	3.7	-2.4	-9.2	-8.3	-6.2
전기대비 증감률(%)	3.4	3.9	-0.1	3.7	0.7	1.6	-0.1	1.4	-5.2	-5.4	0.9	3.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4.5	0.9	-1.9	9.6	-2.8	-2.3	0.0	-2.4	-6.1	-6.8	0.9	2.1

주 : 2015년 2분기 이후 수출선행지수 산출 모형 변경, 수출선행지수는 신규수치 산출 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3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3.0%), 원화환율 불안정(40.6%) 및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31.3%)가 꼽힘.
-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27.5% → 31.3%), 국내기업간 출혈 경쟁(10.4% → 12.1%)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의 비중은 전기보다 증가
 - 원화환율 불안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42.1%)이 대기업(36.9%)보다 많이 응답한 반면,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에 대해서는 대기업(32.3%)이 중소기업(31.0%)에 비해 더 많이 응답
- 산업별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를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은 선박(62.5%), 전기전자(50.0%), 석유화학(47.9%), 철강 및 비철금속(44.6%) 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화환율 불안정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은 자동차(61.5%), 철강 및 비철금속(53.6%), 기계류(52.7%) 등에서 높음.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둔화는 선박(40.6%), 전기전자(36.0%), 철강 및 비철금속(32.1%) 산업에서 응답 비율이 높음.

I. '15년 3분기 수출 실적 평가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 3분기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9.5% 하락·수출물량은 증가세 지속

-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5% 하락한 1,283억 달러 기록
 - 7월(5.1%↓), 8월(14.9%↓), 9월(8.3%↓)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져 2분기(7.2%↓)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돼, 2010년 4분기(1,287억 달러) 이후 최초로 분기 수출액이 1,300억 달러를 하회한 1,283억 달러 기록
- 2분기부터 이어진 유가하락 영향으로 관련 품목 수출 부진이 지속됐으나, 유럽 등 선진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자, 자동차 관련 수출은 9월 들어 회복세로 전환

※ 유가(WTI, \$/bl) 추이(기간평균) :

73.2 ('14.4/4) → 48.5 ('15.1/4) → 57.8 (2/4) → 46.5 (3/4)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액	1,353	1,412	1,368	1,464	1,375	1,457	1,418	1,477	1,334	1,351	1,283
증가율 (%)	0.3	0.7	2.8	4.7	1.6	3.2	3.6	0.9	-3.0	-7.2	-9.5
수출물가지수	100.0	98.4	98.7	98.8	98.1	98.0	98.1	93.1	87.9	88.3	84.5
증가율 (%)	-2.5	-2.1	-0.8	-0.5	-1.9	-0.4	-0.6	-5.7	-10.4	-9.9	-13.9
수입물가지수	110.8	107.0	107.7	108.2	107.8	107.8	106.0	95.8	85.8	85.7	80.4
증가율 (%)	-6.1	-5.6	-4.0	-2.7	-2.7	0.8	-1.6	-11.5	-20.4	-20.5	-24.2
수출물량지수	120.5	127.3	124.0	132.3	125.9	131.3	129.5	139.3	129.4	135.1	134.9
증가율 (%)	5.8	6.0	2.3	5.1	4.5	3.1	4.4	5.3	2.8	2.9	4.2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주1: 수출액은 억달러,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입물가지수는 달러화 기준 (2010=100)

- 지역별로는 유럽 지역의 수출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對일본·중국 수출 감소는 지속되고 있고, 회복되던 미국 수출도 다시 하락으로 전환

※ 대중 수출증가율(%) : $\Delta 3.3(5월) \rightarrow 0.6(6월) \rightarrow \Delta 6.5(7월) \rightarrow \Delta 9.1(8월) \rightarrow \Delta 5.0(9월)$
 ※ 대일 수출증가율(%) : $\Delta 13.8(5월) \rightarrow \Delta 13.0(6월) \rightarrow \Delta 28.8(7월) \rightarrow \Delta 24.7(8월) \rightarrow \Delta 24.3(9월)$
 ※ 대미 수출증가율(%) : $\Delta 7.2(5월) \rightarrow 6.9(6월) \rightarrow 1.4(7월) \rightarrow \Delta 4.6(8월) \rightarrow \Delta 3.7(9월)$
 ※ 대EU 수출증가율(%) : $\Delta 9.1(5월) \rightarrow \Delta 4.6(6월) \rightarrow \Delta 6.0(7월) \rightarrow \Delta 20.8(8월) \rightarrow 19.7(9월)$

- 품목별로는 유가 관련 품목인 석유제품·석유화학은 감소세가 지속됐고, 공급과잉인 철강·선박의 부진도 이어졌으나, 반도체는 호조세를 유지했고, 무선통신기기·가전·차부품 등은 증가세로 전환

※ 석유화학 수출증가율(%) : $\Delta 21.1(5월) \rightarrow \Delta 13.6(6월) \rightarrow \Delta 19.0(7월) \rightarrow \Delta 26.7(8월) \rightarrow \Delta 25.0(9월)$
 ※ 선박 수출증가율(%) : $\Delta 34.3(5월) \rightarrow \Delta 19.4(6월) \rightarrow 56.7(7월) \rightarrow \Delta 52.2(8월) \rightarrow \Delta 20.4(9월)$
 ※ 반도체 수출증가율(%) : $4.3(5월) \rightarrow 2.9(6월) \rightarrow 6.2(7월) \rightarrow 4.0(8월) \rightarrow 1.4(9월)$
 ※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 : $23.9(5월) \rightarrow 12.4(6월) \rightarrow \Delta 17.4(7월) \rightarrow 13.1(8월) \rightarrow 40.9(9월)$

- 수출물량은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수출물가는 하향세 지속

- 수출물가지수(달러화기준)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의 하락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3.9%, 전기에 비해서도 4.3% 하락
- 수출물량지수는 제1차 금속제품, 수송장비 등은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증가세로 전환해 전년동기대비 4.2% 상승

□ 원자재·중간재 수입물가 하락 심화로 수출채산성은 상승

-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8% 하락했으나 전기(4.5%↓)에 비해 하락률을 축소한 반면,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는 13.6% 하락하는 등 하락폭 심화 지속으로 수출채산성은 상승

※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 : $87.5('14.4/4) \rightarrow 83.6('15.1/4) \rightarrow 83.8(2/4) \rightarrow 85.4(3/4)$
 ※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89.9('14.4/4) \rightarrow 81.6('15.1/4) \rightarrow 81.4(2/4) \rightarrow 81.3(3/4)$

- 특히 원자재 수입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4.8% 하락한 69.4, 중간재 수입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5.6% 하락한 82.0으로 수출용 수입물가의 안정 하향세 지속

※ 원자재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93.4('14.4/4)→75.4('15.1/4)→75.2(2/4)→69.4(3/4)

※ 중간재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85.9('14.4/4)→80.6('15.1/4)→80.6(2/4)→82.0(3/4)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채산성 개선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p 상승한 94 기록

○ 3분기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수출단가(원화기준) 상승 영향으로 전기(94)보다 개선된 98을 기록

-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97 → 100)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상승세를 나타냄.

※ 원/달러환율 : 1,072.4('15.4월) → 1,108.2(5월) → 1,115.5(6월) → 1,170.0(7월) → 1,182.5(8월) → 1,185.3(9월)

- 생산원가 평가지수는 전기(103)와 동일한 103을 기록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평가지수	89	99	95	94	96	94	94	95	90	93	94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6	98	94	93	96	88	90	98	90	94	98
수출단가 평가지수	94	97	94	93	97	85	90	98	91	97	100
생산원가 평가지수	106	104	102	102	107	102	101	102	99	103	103
수출물량 평가지수	91	105	100	102	95	104	98	97	90	96	94
수출계약 평가지수	91	105	101	102	96	103	97	96	89	96	93
자금사정 평가지수	98	102	100	99	100	97	93	98	93	96	95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96)보다 하락한 94를 기록, 3분기 중 수출기업의 실적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계약 평가지수도 전기(96)보다 악화된 93을 기록하여 수출업체들의 계약 성사 건 수가 전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출실적 회복 난망
- 자금사정 평가지수(96 → 95)도 1p 하락하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금사정 평가지수가 6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양상을 보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장기화 우려

<2015년 2분기, 3분기 수출업황, 수출채산성, 수출물량 평가지수>

구 분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규모	대 기업	98	96	100	99	104	96
	중 소 기업	91	93	91	98	93	93
산업	석 유 화 학	98	89	102	90	99	89
	철강·비철금속	81	92	83	95	85	94
	전 기 전 자	95	100	94	103	95	102
	기 계 류	89	90	88	97	91	90
	자 동 차	94	94	101	98	98	86
	선 박	90	91	87	102	90	91
	섬 유 류	101	102	97	105	101	105
	플랜트·해외건설	99	97	103	106	113	97
수출지역	미 국 (북 미)	97	97	97	103	101	97
	중 국	93	89	97	94	95	96
	일 본	88	96	84	103	92	93
	유 로 존	92	94	91	99	94	88
	동 남 아	87	93	92	94	93	90
	중 남 미	83	83	117	83	117	100

- 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로 대기업은 전기대비 2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2p 상승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역시 대기업(100 → 99)은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91 → 98)의 상승폭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업황 개선이 더 두드러짐.
 - 수출물량 평가지수도 대기업(104 → 96)은 하락하고 중소기업(93 → 93)은 전기대비 동일
-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석유화학과 플랜트·해외건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승
 - 산업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철강·비철금속(83 → 95), 전기전자(94 → 103), 기계류(88 → 97), 선박(87 → 102) 등에서 상승하며 채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석유화학, 자동차는 하락
 - 산업별 수출물량 평가지수 역시 철강·비철금속(85 → 94), 전기전자(95 → 102), 섬유류(101 → 105) 등의 산업에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석유화학, 자동차, 플랜트·해외건설에서 하락
- 수출지역별 업황 평가지수는 일본, 유로존, 동남아 지역에서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했고, 중국(93 → 89)은 하락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특히 일본(84 → 103)에서 큰 폭 증가하고 미국(97 → 103), 유로존(91 → 99), 동남아 지역(92 → 94)에서도 개선되었으나, 중남미(117 → 83), 중국(97 → 94)은 하락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중국(95 → 96), 일본(92 → 93)에서 소폭 개선되었으나, 미국, 유로존, 중남미 등 이외 지역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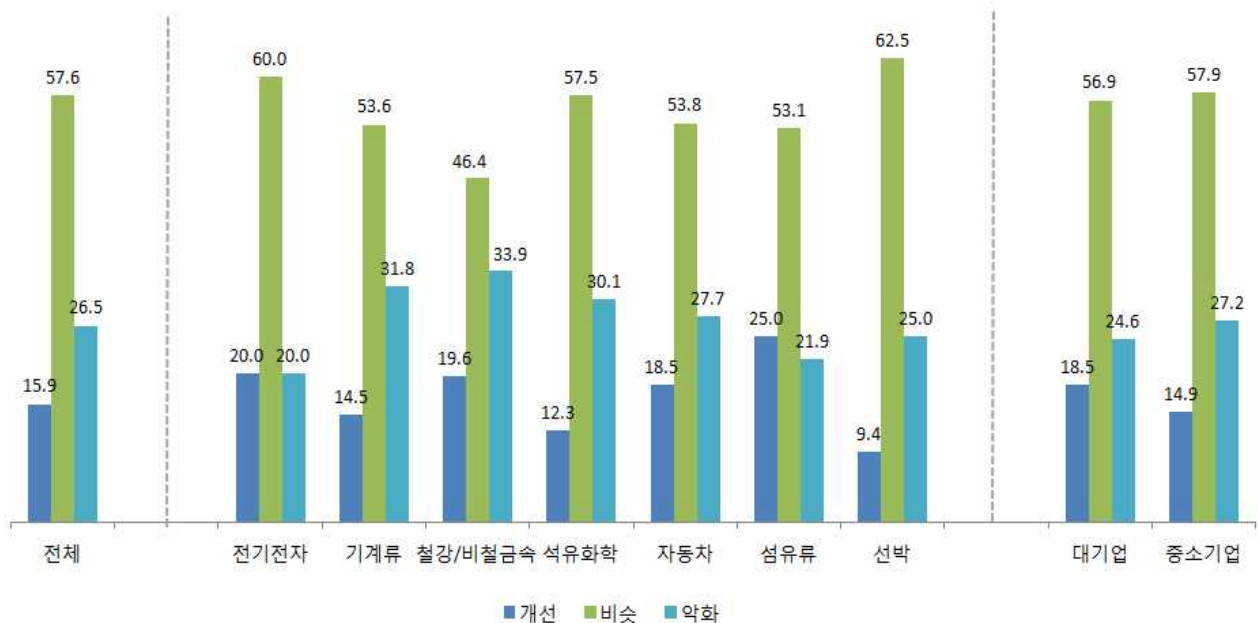
3. 수출업황 개선 및 악화 원인

- 3분기 중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15.9%,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26.5%

- 전기(개선 15.6%, 악화 26.4%)에 비해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과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모두 소폭 증가
 - 나머지 57.6%는 수출업황이 '15년 2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하였으며, 전기(57.9%)에 비해 그 비중이 소폭 감소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4.6%)보다 중소기업에서 업황이 악화된 기업 비중(27.2%)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전기와 비교할 때 업황 악화를 답한 대기업(21.0% → 24.6%)의 비중이 중소기업(28.8% → 27.2%) 비중보다 더 늘어남.
- 산업별로 보면 철강·비철금속, 기계류, 석유화학 산업에서 업황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섬유류 산업은 업황이 악화 응답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2015년 3분기 수출기업 업황 개선 및 악화 분포>

(총 기업 수 45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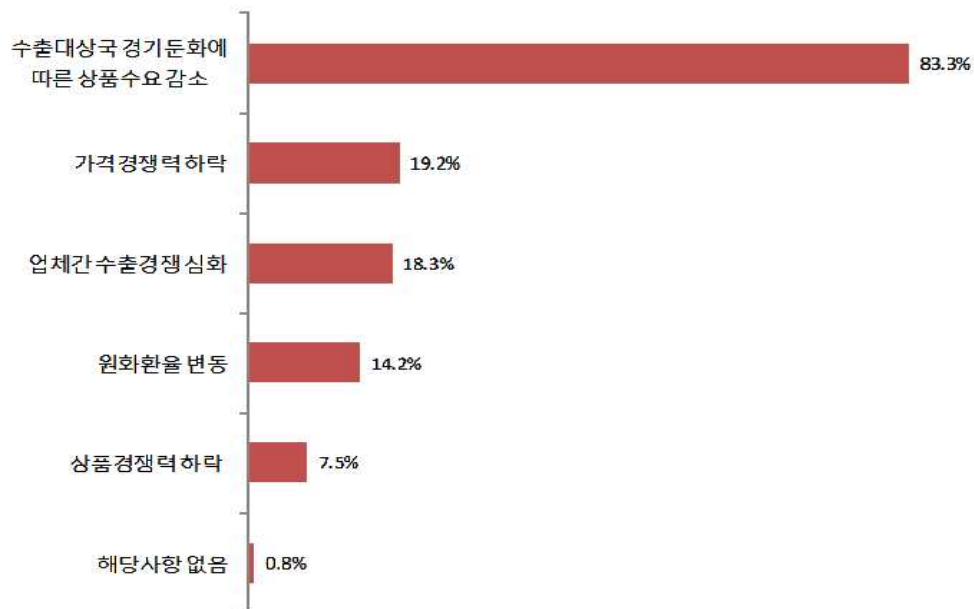


-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들은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 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83.3%)와 가격경쟁력 하락(19.2%)을 가장 많이 선택(복수응답).

- 최근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기업 가운데 75.9%의 기업이 업황 악화의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를 응답
 - 미국,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그 비중이 각각 86.7%, 88.9%로 높게 나타남.
- 가격경쟁력 하락을 수출업황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중소기업에서는 15.9%인 반면 대기업에서는 28.1%로 나타나, 대기업이 최근 가격경쟁력 압박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들이 최종재 수출 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시장 수요 부진으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2015년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업황 악화 기업 수 120, 복수 응답, 단위 : %)



- 산업별로는 플랜트/해외건설(100.0%), 해운(100.0%), 전기전자(95.0%) 산업에서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에 높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
- 가격경쟁력 하락을 수출업황 악화의 주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산업은 철강/비철금속(31.6%), 자동차(27.8%), 플랜트/해외건설(25.0%)

- 지역별로는 유로존(33.3%), 중국(20.7%) 수출기업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업규모, 산업, 수출지역별 2015년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상품 경쟁력 하락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 대상국 경기악화	업 체 간 수출경쟁 심화	원화 환율 변동	기 타
구 모	대 기 업	9.4	28.1	75.0	34.4	12.5	0.0
	중 소 기 업	6.8	15.9	86.4	12.5	14.8	1.1
산 업	전 기 전 자	0.0	20.0	95.0	5.0	5.0	0.0
	기 계 류	11.4	11.4	85.7	25.7	17.1	0.0
	철강·비철금속	10.5	31.6	68.4	15.8	21.1	5.3
	석유정제/화학	4.5	22.7	86.4	13.6	22.7	0.0
	자 동 차	16.7	27.8	77.8	11.1	11.1	0.0
	섬 유 류	0.0	14.3	85.7	42.9	14.3	0.0
	플랜트·해외건설	0.0	25.0	62.5	12.5	37.5	0.0
	선 박	11.1	22.2	66.7	22.2	22.2	0.0
	미 국 (북 미)	6.7	16.7	86.7	20.0	6.7	0.0
수 출 지 역	중 국	6.9	20.7	75.9	13.8	17.2	0.0
	일 본	14.3	7.1	78.6	21.4	14.3	0.0
	유 로 존	6.7	33.3	80.0	20.0	13.3	6.7
	동 남 아	0.0	11.1	88.9	22.2	27.8	0.0
	중 남 미	0.0	50.0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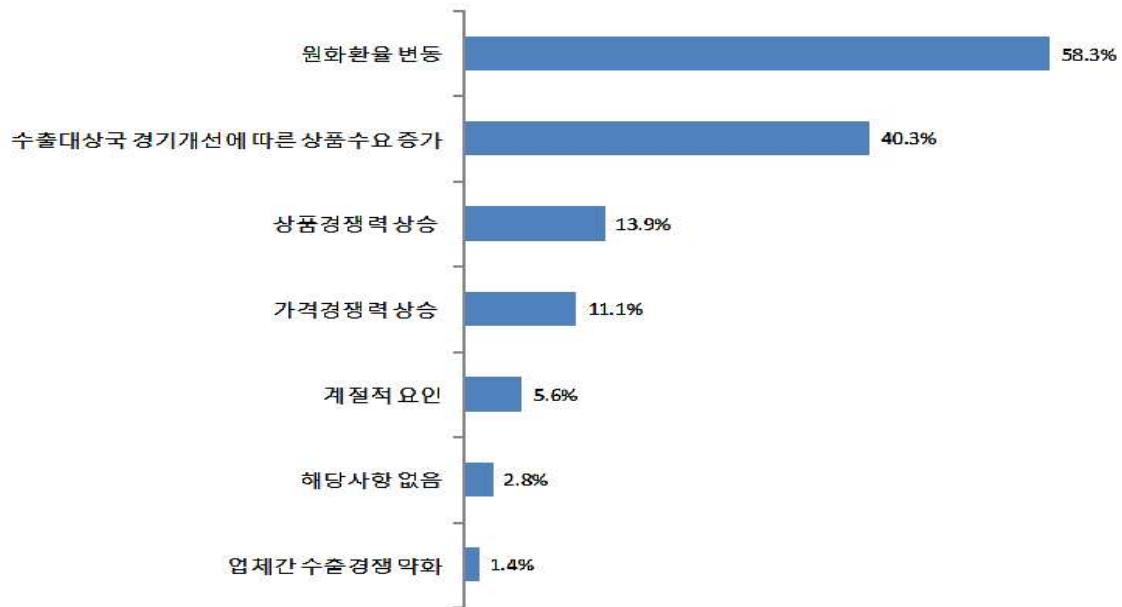
□ 수출업황이 개선된 기업의 경우 개선 요인으로 원화환율 변동(58.3%)과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40.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복수응답)

○ 수출업황 개선 기업 중 원화환율 변동을 개선 요인으로 답한 기업의 경우 주요 수출지역이 동남아(75.0%), 일본(70.0%), 미국(56.5%) 등으로 나타남.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를 응답한 기업의 경우 주요 수출지역은 일본(60.0%), 미국(56.5%) 등으로 답함.

<2015년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업황 개선 기업 수 72, 복수 응답, 단위 : %)



<기업규모, 산업, 수출지역별 2015년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상품 경쟁력 상 승	가격 경쟁력 상 승	수출 대상국 경기개 선	업 체 간 수출경쟁 약화	원 화 환 율 변 동	기 타
규 모	대 기 업	4.2	12.5	45.8	0.0	58.3	4.2
	중 소 기 업	18.8	10.4	37.5	2.1	58.3	2.1
산 업	석 유 화 학	11.1	0.0	33.3	0.0	77.8	0.0
	철강 및 비철금속	18.2	27.3	36.4	0.0	63.6	0.0
	전 기 전 자	10.0	20.0	50.0	0.0	45.0	5.0
	기 계 류	12.5	0.0	50.0	6.3	68.8	0.0
	자 동 차	16.7	0.0	33.3	0.0	83.3	0.0
	선 박	33.3	33.3	0.0	0.0	33.3	0.0
	섬 유 류	25.0	0.0	50.0	0.0	37.5	0.0
	플랜트·해외건설	0.0	16.7	16.7	0.0	66.7	16.7
수출 지역	미 국 (북 미)	8.7	8.7	56.5	0.0	56.5	4.3
	중 국	23.1	15.4	38.5	7.7	30.8	0.0
	일 본	0.0	10.0	60.0	0.0	70.0	0.0
	유 로 존	22.2	11.1	11.1	0.0	55.6	0.0
	동 남 아	25.0	12.5	25.0	0.0	75.0	0.0

- 산업별로는 원화환율 변동을 주요 개선 요인으로 꼽은 산업은 자동차(83.3%), 석유화학(77.8%), 기계류(68.8%)
- 한편,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를 개선 요인으로 응답한 산업은 전기전자(50.0%), 기계류(50.0%) 및 섬유류(50.0%)
- 철강·비철금속(27.3%) 및 전기전자(20.0%)의 경우에는 가격경쟁력 상승이 다른 산업에 비해 업황 개선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II. '15년 4분기 수출 전망

1. 수출선행지수 추이

□ 4분기 수출선행지수 전기대비 3.7% 상승, 전년동기대비 6.2% 하락

- '15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기대비 3.7% 상승했으나,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6.2% 기록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Delta 2.4('15.1/4) \rightarrow \Delta 9.2(2/4) \rightarrow \Delta 8.3(3/4) \rightarrow \Delta 6.2(4/4)$

※ 선행지수 전기대비 증가율(%)

: $\Delta 5.2('15.1/4) \rightarrow \Delta 5.4(2/4) \rightarrow 0.9(3/4) \rightarrow 3.7(4/4)$

<수출선행지수 추이>

분기별	2013				2014				2015			
	1/A	2/A	3/A	4/A	1/A	2/A	3/A	4/A	1/A	2/A	3/A	4/A
수출선행지수	110.1	114.4	114.2	118.5	119.4	121.4	121.2	122.9	116.5	110.2	111.1	115.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7	3.6	1.7	11.3	8.5	6.1	6.1	3.7	-2.4	-9.2	-8.3	-6.2
전기대비 증감률(%)	3.4	3.9	-0.1	3.7	0.7	1.6	-0.1	1.4	-5.2	-5.4	0.9	3.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4.5	0.9	-1.9	9.6	-2.8	-2.3	0.0	-2.4	-6.1	-6.8	0.9	2.1

주1 : 2015년 2분기 이후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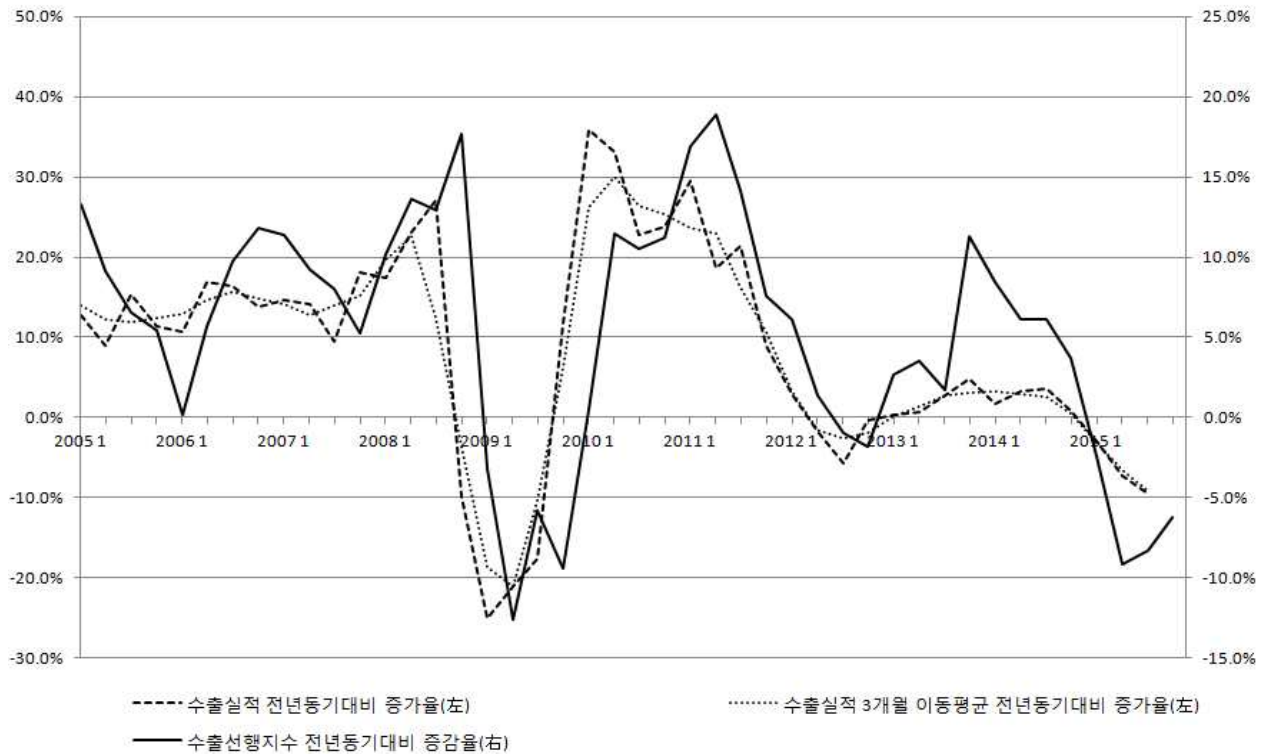
주2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 그러나 수출선행지수의 전기대비 증감률이 전분기 반등한 이후 증가폭을 더 확대해 수출 경기 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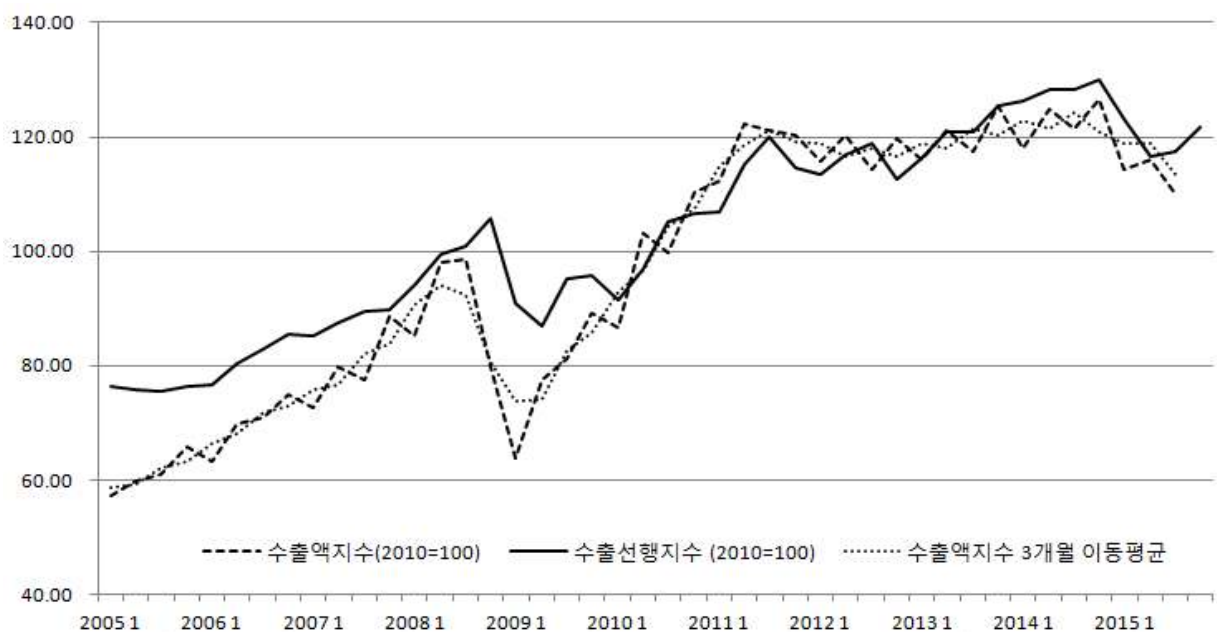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 차(%p)

: $\Delta 6.1(15.1/4) \rightarrow \Delta 6.8(2/4) \rightarrow 0.9(3/4) \rightarrow 2.1(4/4)$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실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지수 추이>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및 수출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부진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유로존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등 경기 회복을 보이던 일부 선진국의 경기회복력이 다시 떨어지고, 중국·브라질 등 개도국 경기하락세도 지속되면서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세 둔화

※ OECD선행지수: 100.2('15.4월)→100.1(5월)→100.1(6월)→100.0(7월)→99.9(8월)

- 선진국 경기회복에 의한 수출 주문 확대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 지수는 전기대비 상승

※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지수 (2010=100)

: 119.35('14.4/4) → 85.73('15. 1/4) → 90.28(2/4) → **94.26(3/4)**

- **가격경쟁력** :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에 비해 상승함에 따라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해 가격경쟁력 상승

※ 원/달러환율(평균) : 1,089.3('14.4/4) → 1,100.5('15.1/4) → 1,098.7(2/4) → 1,179.5(3/4)

※ 원화 실질실효환율* : 110.2('14.4/4) → 113.9('15.1/4) → 114.3(2/4) → 109.8(3/4)

- **실질실효환율*** :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 약화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월 실질실효환율(108.3)은 2014년 3월(107.9) 이후 최저치 기록

* 실질실효환율 : 교역상대국의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뒤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하는 지표로, 2010년=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통화가치 고평가를, 100 이하면 통화가치 저평가를 나타냄.

- **수출물가** :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안정으로 인한 석유 및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수출물가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제1차 금속제품 가격 하락세도 지속

※ 수출물가지수 전월대비 등락률(%)

: △0.7('15.6월) → △2.2(7월) → △2.4(8월) → △1.0(9월)

※ 수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등락률(%)

: △10.4('15.6월) → △12.6(7월) → △14.4(8월) → △14.5(9월)

- **주요 산업** : 반도체 산업은 수주/출하 비율이 2분기 연속 1.0을 상회해 안정세를 유지하겠으나, 선박수출은 수출금액이 작은 상선 위주 인도로 수출액 감소, 기계수주도 중동 및 일본 지역 수요 위축으로 감소세 지속

□ '15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 하락 전망

- 4분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수출선행지수가 전분기대비 3.7% 상승하고 전년동기대비 하락률도 -6.2%로 축소되는 등 수출 하락세가 진정돼, 전분기의 수출액 감소율(전년동기대비 9.5%↓)과 유사한 전년동기대비 9% 내외 하락 전망
- 북미 블랙프라이데이(11월), 유럽 박싱데이(12월) 등 연말 성수기 영향으로 수출 규모는 증가하겠으나, 지난해 4분기 수출실적(1,477억 달러)이 매우 높았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 하락폭 감소는 제한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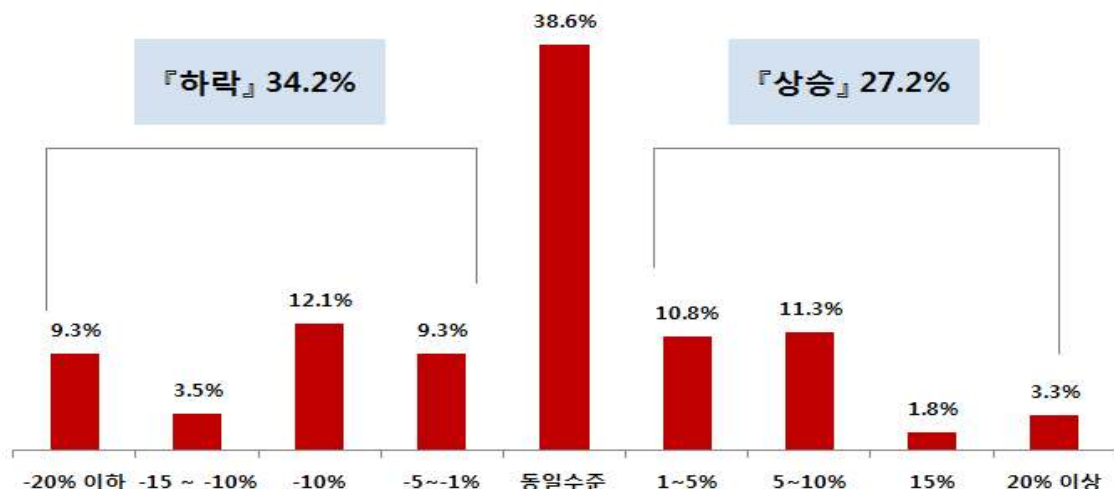
2. 수출기업 수출 목표치 전망

□ 수출기업 4분기 수출 목표치는 전년동기대비 -1.9% 감소

- 수출기업 가운데 34.2%가 4분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7.2%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전년동기대비 2015년 4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총 기업 수 453)



- 목표 수출증가율의 분포는 전년동기와 동일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이 3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를 전망한 기업이 12.1%, 수출 5~10% 증가를 전망한 기업이 11.3%, 수출 1~5% 증가를 전망한 기업이 10.8% 순
 -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도 9.3%로 전 분기(8.0%)에 비해 비율 증가
- 대기업은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평균 2.2%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평균 1.8% 감소를 응답해 대기업 수출액 하락 예상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은 4분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2%, 증가 전망 비율은 24.6%
 - 중소기업은 감소 전망 비율이 33.4%, 증가 전망 비율이 28.2%로 대·중소기업 모두 하락 전망이 우세
- 이에 따라 전체 응답 기업의 평균 수출액 목표치는 1.9% 감소할 것으로 집계

□ 산업별로는 녹색산업, 자원개발 기업들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전년동기대비 수출 하락 전망

○ 전체 산업 가운데 문화콘텐츠(-7.9%), 철강 및 비철금속(-4.4%), 선박(-4.0%), 석유화학(-3.0%) 산업에서 전년동기대비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의 경우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는 있으나 하락된 유가로 인한 단가 인하 영향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철강 및 비철금속은 세계시장 공급과잉으로 수출감소 지속 전망

○ 반면 녹색산업(8.7%), 자원개발(2.5%) 산업에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산업별 전년동기대비 2015년 4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단위 %

구 분	-20% 이하	-15% ~-10%	-10%	-5% ~-1%	0%	1% ~5%	5% ~10%	15%	20% 이상	평균
전 기 전 자	8.0	2.0	14.0	8.0	33.0	14.0	16.0	1.0	3.0	-1.0
기 계 류	9.9	4.5	10.9	10.0	40.9	9.1	7.3	3.6	3.6	-2.7
철강 및 비철금속	9.0	5.4	17.9	10.7	33.9	12.5	7.2	1.8	1.8	-4.4
석 유 화 학	12.3	2.8	12.3	6.8	45.2	2.7	12.3	1.4	4.1	-3.0
자 동 차	12.3	3.1	4.6	10.7	43.1	12.3	7.7	3.1	1.5	-2.1
섬 유 류	0.0	6.3	18.8	3.1	43.8	9.4	12.5	3.1	3.1	-0.2
플랜트·해외건설	8.4	2.8	8.3	11.1	30.6	13.9	19.5	0.0	5.6	-1.0
녹 색	4.2	0.0	8.3	4.2	45.8	12.5	8.3	4.2	8.4	8.7
선 박	9.4	0.0	12.5	18.8	31.3	15.6	9.4	0.0	3.1	-4.0
문 화 컨 텐 츠	28.6	0.0	14.3	0.0	42.9	14.3	0.0	0.0	0.0	-7.9
해 운	0.0	12.5	0.0	0.0	62.5	25.0	0.0	0.0	0.0	-0.6

□ 수출지역별로는 중동(-9.2%), 일본(-4.1%), 중국(-3.6%)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동유럽(2.5%), 인도(2.0%), 동남아(1.3%)에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0.8%)과 유로존(-1.7%)에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 축소 예상

<수출지역별 전년동기대비 2015년 4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단위 %)

구 분	-20% 이하	-15% ~-10%	-10%	-5% ~-1%	0%	1% ~5%	5% ~10%	15%	20% 이상	평균
미국(북미)	8.5	2.5	11.9	5.9	39.8	11.8	11.9	2.5	3.3	-0.8
중 국	10.6	2.3	9.3	14.0	38.4	10.5	12.8	1.2	1.2	-3.6
일 본	15.6	2.0	7.8	11.8	33.3	19.6	7.8	0.0	2.0	-4.1
유 로 존	5.7	4.3	14.3	8.6	37.1	10.0	12.9	2.9	4.3	-1.7
동 남 아	7.6	2.6	15.2	6.3	45.6	2.5	11.4	1.3	6.4	1.3
중 남 미	0.0	16.7	16.7	16.7	16.7	16.7	0.0	16.7	0.0	-1.7
중 동	19.1	11.5	7.7	0.0	34.6	15.4	7.6	0.0	0.0	-9.2
아프리카	0.0	0.0	50.0	0.0	25.0	0.0	0.0	0.0	25.0	7.5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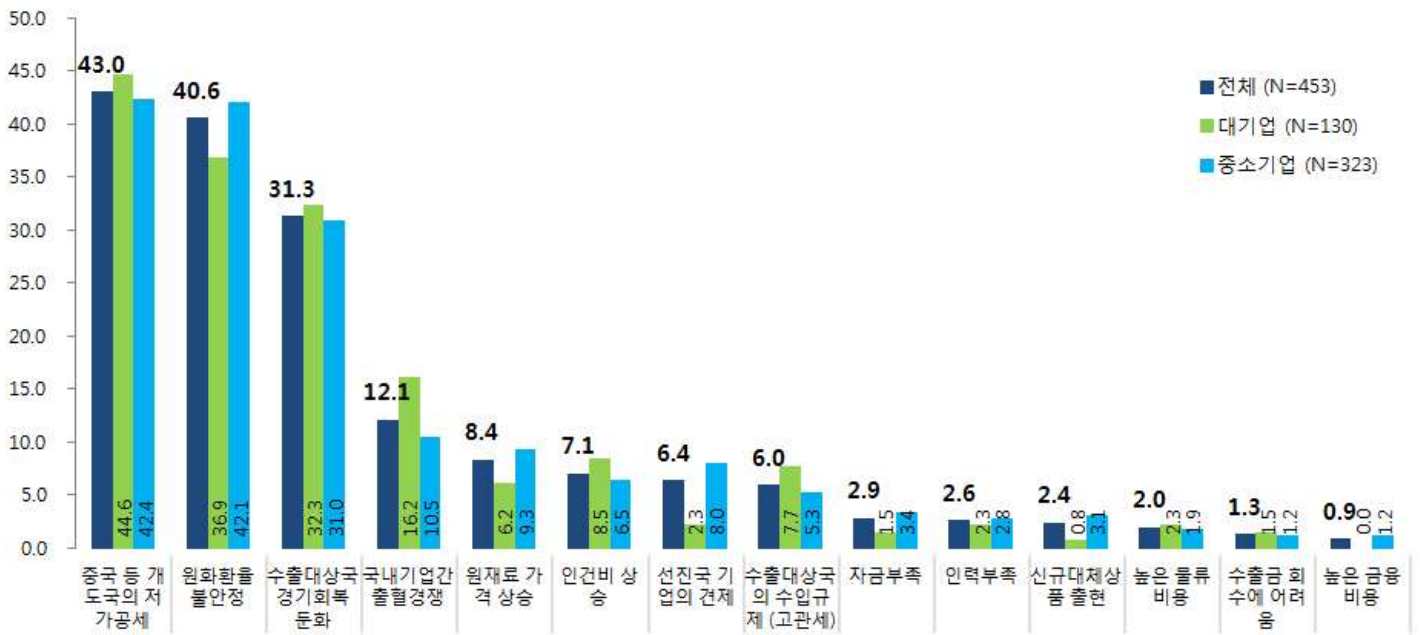
□ 3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3.0%), 원화환율 불안정(40.6%) 및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31.3%)가 꼽힘.

○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27.5% → 31.3%), 국내기업간 출혈 경쟁(10.4% → 12.1%)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의 비중은 전기보다 증가

- 반면 원화 환율 불안정(46.5% → 40.6%),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4.7% → 43.0%)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 비중은 전기대비 감소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각각 44.6%, 42.4%)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원화환율 불안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42.1%)이 대기업(36.9%)보다 많이 응답한 반면,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에 대해서는 대기업(32.3%)이 중소기업(31.0%)에 비해 더 많이 응답

<2015년 3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1순위+2순위)



- 산업별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를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은 선박(62.5%), 전기전자(50.0%), 석유화학(47.9%), 철강 및 비철금속(44.6%) 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화환율 불안정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은 자동차(61.5%), 철강 및 비철금속(53.6%), 기계류(52.7%) 등에서 높음.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둔화는 선박(40.6%), 전기전자(36.0%), 철강 및 비철금속(32.1%) 산업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 2015년 3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1순위 + 2순위)

구 분	석 화	유 화	철 비 금	강 철 속	전 기 자	기 계 류	자 동 차	선 박	섬 유 류	플랜트· 해 외 건 설
원 화 환 율 불 안 정	34.2		53.6		35.0	52.7	61.5	18.8	31.3	27.8
중국 등 개도국의 자가공세	47.9		44.6		50.0	41.8	43.1	62.5	31.3	41.7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	27.4		32.1		36.0	29.1	21.5	40.6	25.0	27.8
원 재 료 가 격 상 승	11.0		1.8		7.0	6.4	6.2	6.3	18.8	2.8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11.0		8.9		11.0	9.1	1.5	18.8	9.4	36.1
선진국 기업의 견제	6.8		0.0		6.0	10.9	7.7	3.1	6.3	5.6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8.2		14.3		6.0	4.5	3.1	3.1	12.5	5.6
인 건 비 상 승	5.5		7.1		5.0	2.7	6.2	9.4	12.5	5.6
인 력 부 족	2.7		3.6		3.0	1.8	1.5	0.0	3.1	2.8
자 금 부 족	4.1		1.8		3.0	0.9	0.0	0.0	3.1	2.8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1.4		1.8		1.0	0.9	1.5	0.0	0.0	0.0
높 은 금 융 비 용	0.0		1.8		1.0	0.9	1.5	0.0	0.0	2.8
높 은 물 류 비 용	5.5		3.6		1.0	4.5	3.1	0.0	6.3	0.0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1. 설문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평가 : 조사 해당 분기
 - 실적전망 : 조사 다음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15년 9월 10일~17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 크기 : 대·중소기업 453개 업체
(대기업 130개, 중소기업 323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 평가지수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 평가지수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 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수출계약 평가지수		수출계약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 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3.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 모형 개편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15년 2분기 이후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개편 보완

□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 OECD,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수출가격 변수	· 실질실효환율
산업별 수주현황	·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 · 반도체 : North America Capital Equipment Book-to-Bill Ratio(SEMI) · 선박 : 해외수요 선박수주액 · 기계 : 해외수요 기계수주액